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상규



한글 창제 560돌이 되는 올해의 한글날은 매우 뜻 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의 중흥기를 맞는 오늘날 우리들은 세종 대왕이 직접 창제한 한글의 덕을 토틈 특특히 보고 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현대 전파의 자판을 보자. 현대 전파에서 모음은 ㅏ(·), ㅑ(·), ㅓ(·) 석 자로 수십 가지의 모음을 다 적을 수 있으며 자음은 동일한 자판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ㄱ(예삿소리)→ㅋ(거센소리)→ㆁ(된소리)의 순으로 바뀌게 된다.

는 원천이며, 국가 발전의 동력이다. 21세기를 흔히 문화 자본의 시대라고 한다. 우리가 가진 우수한 문화 기반을 세 계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중국은 경제 대국화와 동북아

국경일로 승격된 한글날을 맞으며

공정으로, 일본은 우경화와 군사 재무장으로 주변국과 국경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 국익 우선의 동맹국 정책을 확산하는 등 결국 만만찮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국가적 목표와 방향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12위에 이르는 언어 강국이자 정보기술 강국으로서 '동북아 문화 동반자 공동체'를 주도할 만한 역량을 가진 나라이다. 이제 한국어는 단순히 어문 규범에 맞는지 틀리는지 하는 문제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어의 우수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대 전파 보급률과 우수한 기술의 축적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

이 아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효율성 덕분에 우리나라 현대 전파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 최근 불어닥치고 있는 한류 열풍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중심에 한글과 우리말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을 통해 아시아를 한반도 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대립과 갈등 등으로 점철되었으며, 또 언어적으로도 다양한 차이를 보여 주었던 것이 바로 아시아 지역이다. 그만큼 아시아의 연대와 통합은 운명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말을 통해 우리 문화를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를 맞고 있다. 나라 안으로는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됨으로써 국민 개개인은 우리말과 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부는 국어를 중흥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뜻 깊은 계기가 마련되었다. 나라 밖으로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중남미, 유럽 등지에서도 우리말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라올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세기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국들은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국외에 보급함으로써 언어문화 권역 확장을 통한 시장 확대와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우리도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이나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처럼 선진국의 성공적인 문화원을 본보기로 하여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세계인들과 더불어 공유하는 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과제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기반의 국제화를 위해 공중과 한국어 교육 방송을 운영하는 일이다. 이 상과 같이 한글과 한국어를 문화 창조와 국제 문화 교류의 연모로 힘써 다듬고 널리 알리는 것이 바로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과 한글날 국경일 승격의 의의를 살리는 일이 될 것으로 믿는다.

<국립국어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은행권 중소기업 자금지원 생색내기라니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이 대부분 생색내기라고 그치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지난 1998년 36.6%에서 지난해 6월 말 48.7%로 급증한 반면 신용 대출 비중은 51.2%에서 43.2%로 급감했다.

은행들이 신용보다는 담보를 통해 자금을 거둬들이는 전당포식 영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은행 대출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올 들어 중소기업 지원에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자금지원 실태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이는 방식의 '땀 짠 해임기시'

국가경쟁력 또 추락...대책 서둘러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또 떨어졌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27일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국제경쟁력지수는 125개국 가운데 24위를 기록, 지난해 19위에서 5단계 추락했다. 싱가포르가 5위를 고수하고, 일본이 3단계 상승해 7위에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동산 경쟁력을 보면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공공제도부문은 작년 38위에서 47위로 밀려났다. 정부의 정책집행과 일관성에서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노사협력관계는 114위에 그쳐 개도국 수준에 머물렀다. 기업경쟁력지수도 121개 조사 대상국 중 25위를 차지, 1단계 떨어졌다. 기업활동의 예로서항으로 정책의 불안정성, 비능률적 관료제, 자금조달상 애로, 경직된 노동관계 법규, 세계관련 규정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비능률성과 정책의 불안정성, 경직된 노사관계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예로서항들이 지난해에도 지적되었다는 점이다. 경쟁국들이 앞서 가는 동안 정부와 기업 등이 평가 지수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이런 상태에선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잠재력은 충분하다. 대학진학률(2위), 인터넷 사용자(4위), 초등학교 입학률(4위), 이자율 가산금리(6위), 기업의 R&D 투자(9위), 정보통신 관련 법령(11위) 등은 상위순위에 올랐다. 방안은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보고서에 제시돼 있다. 핵심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지금처럼 '큰 정부'를 지향해선 국가경쟁력은 확보될 수 없다.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말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최근에 가장 대중화된 음식 중 하나를 꼽으라면 홍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서울에서도 어렵지 않게 홍어 요리 전문점을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전라도 특유의 홍어문화가 차츰 북상해 이제는 전국구로서 손색이 없다.

홍어요리가 전국에 퍼지게 된 데는 수입산 홍어가 한 몫을 했다. 흑산 홍어 가격이 비싼데다 수년전까지 홍어로 어획량이 적어 칠레 등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산이 토종 홍어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 홍어가 많이 잡혔다는 지난해에도 흑산 홍어 어획량은 56톤에 그친 반면 9천700여이 수입됐다.

홍어의 역사는 영산포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포에 본격적인 항구가 갖춰지기 전까지 호남 제일의 항구는 영산포였다. 서남해안에서 잡힌 각종 수산물은 모두 영산포로 몰렸다. 흑산도 근해에서 잡은 홍어는 130km떨어진 영산포에 와서야 비로소 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 굵이 굵이 영산강 뱃길을 따라 영산

포까지 오는 동안 제대로 삭혀지면서 독특한 절묘한 홍어 맛을 냈던 것이다. 지금도 영산포에는 30여 곳의 업소가 상업중이다.

홍어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헬빙' 개념에 딱 들어맞는 발효식품이다. 다른 생선에 비해 최고 10배나 많은 요소가 발효 과정에서 암모니아로 변하면서 알칼리성으로 숙성된다. 옛부터 천식 등 소화기

계통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여기에 홍어가 관절염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학술적으로 입증됐다.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이태훈 교수팀이 홍어 연골에서 콘드로이틴을 추출, 실험 쥐에 투여한 결과 류마티즘

관절염 예방과 치료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갈수록 개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어 연골을 대체할 수 있다니 홍어 인기가 더욱 치솟게 됐다. 지갑이 얇은 서민들도 홍어를 즐길 수 있도록 겨울에는 홍어가 많이 잡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재필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독자마당

후분양제 지역상황 고려 상세히 보도 해줬으면

서울시가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서울은 영남 뉴타운 지역의 분양가가 너무 높으며 이로 인해 주변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내놓은 것으로 언론은 분석했다.

후분양제는 건설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 실제 투입된 비용에 기초해 분양가를 결정하고 분양하는 방식이다. 정부도 부양 가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해 왔고 내년부터 도입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데 광주는 보고만 있는 것인가. 지역 신문에서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 같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후분양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도입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

또 후분양제 도입으로 뒤따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도 미리 분석해 독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지역 신문이라면 남의 지역이라고 무시코 넘겨버릴 일이 아니라 지역 상황을 고려, 알려줘야 한다.

▲유형은·광주시 북구 용봉동

추석 고향방문길 미리대비 시간낭비 말자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다. 올해는 연휴가 다소 긴 편이라 예년 보다 나은 교통상황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민족대이동 추석이 아닌가. 고향 길 방문에 앞서 인터넷 사이트를 두루 돌아보는 것이 일종의 필수코스다.

한국도로공사(www.freeway.co.kr) 사이트는 추석길 귀향과 귀경에 앞서 서핑해 보면 여러모로 유용하다. 소통 상황 정보 등을 제공하며 무엇보다 좋은 점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고속도로의 교통 소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노선도, 휴게소, 주유소, 구간별 요금 및 거리 등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불편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운행 중 고속도로 상이러면 교통상황안내 1588-2505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고속도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는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의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서비스 중 경로안내는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를 입력해 경로를 검색하는 서비스다. 검색한 결과는 전자지도로 표시해 선택된 지도의 교통상황과 함께 서비스된다. 소통상황은 전국 도로의 정체 여부, 소요 시간, 정체 구간 등 소통 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귀객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사전에 미리 대비하면 아까운 시간을 거리에서 낭비하는 일만은 막을 수 있다. ▲국성아·한국도로공사 합평영업소

마을버스 난폭·과속운전 결행 해도 너무한다

마을버스를 이용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마을버스의 횡포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안다. 영세업자들이 운영하는 바람에 차량이 고장 나면 예비차량이 없어 결행하기 일쑤고 기다리는 승객들은 지각사태를 겪는 일이 잦다. 발디딜 틈도 없어 출입문을 연 채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다.

또 대부분의 마을버스가 변두리나 고지대의 골짜기 심한 노선을 운행하면서도 버스에 손잡이조차 없어 승객들이 이리저리 밀리고 넘어지는 불편도 크다. 게다가 배차시

간을 맞추기 위해 난폭 과속운전을 하거나 배차간격이 6~60분으로 천차만별이다. 승객이 적은 한낮과 심야시간에는 고의결행도 없지않다.

특히 일반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기사가 많은 점도 과속운전 등 서비스 부재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도 당국은 일년에 한두번 점검이 고작이다. 당국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유지호·목포시 축복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기고

정기봉



최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대한 논란이 많다. 농민이 농사를 짓도록 지원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경제사업에는 소홀히 하면서 쉽게 돈벌 수 있는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논란의 발단이다.

농협이 조합원을 위해 농산물 유통을 포함, 경제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신·경분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일품목으로는 영농규모가 작아 복합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지역농협과 협력, 원협을 동시에 가입해 편의의 따라 이용하고 있어 솔직히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우리 농민들과 직접

유지하면서 영농자재가격 적정유지와 농산물 제값 받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중앙회가 각종 자금과 예산자원을 통해 경영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 농민들은 중앙회 안성교육원과 청년교육원 등지에서 영농기술교육, 의식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해 농사를 짓고 어려운 농촌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신·경이 분리되면 최소한 교육조차도 없어질 우려가 높다.

'똥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어떤 기업이나 조직을 분리하면 함께 있을 때보다 힘이 약해질 조직의 목적사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신·경 분리가 경제사업을 전문화하

농협 신·경 분리하면 피해지는 농민

적인 이해관계는 적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 많은 지도·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신·경이 분리되면 그런 지도·지원들이 축소될 것이고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적지만은 않다.

지난해 중앙회에서 전국 각 지역농협에 3천345억원을 지원했고, 조합당 2억 5천700만원이 할당돼 농민들의 사업에 투입됐다. 그러나 신·경이 분리될 경우 이 같은 지원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위기의 농민은 더욱 벼랑끝으로 몰리게 된다.

신·경 분리시 경제사업이 전문화되고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경영이 불안정하다.

오죽하면 농산물 판매사업을 투기사업이라고도 하지 않는가? 지역농협에서 이런 불안정한 경제사업을 그나마

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려면 현재의 조직 내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고행화로 인한 일손부족,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로 인해 지역농협에 대한 각종 지원이 줄어들면 지역농협이 지금까지 농민들에게 지원해오던 것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교육지원사업 효율화와 신용사업경쟁력 강화 등 운영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농업인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

국책은행 운전기사 연봉 문제있다

광주일보 9월 27일자 '국책은행 운전기사 최고 연봉 9천100만원'이라는 보도를 보고 한숨이 나왔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책 금융기관 등의 감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행 등 4개 기관은 정원경찰과 운전 기사를 자체적으로 채용, 외부 위탁보다 연간 135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한다. 정원경찰 218명과 운전기사 88명의 평균 임금이 각각 3천300만원, 6천700만원에 이르고, 운전기사의 최고 연봉이

9천100만원이라니 짜증이 났다.

청원 경찰이나 운전 기사라고 고액 연봉을 받을 수는 없느냐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문제는 단순 반복 업무에 그만큼의 연봉을 책정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그 뿐이던 광주에서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 값이다. 모든 시민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그만큼의 연봉을 받는다면 최고의 직장 아닌가. 판·검사나 4급 공무원보다 많이 받는다고 한다.

▲박용규·광주시 북구 두암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